

## 전선산업 동향 및 전망

최재현 | 평가 4실 평가전문위원 | 02-368-5301 | jhchoi@korearatings.com

###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선산업

전선산업은 대부분의 수요가 국가전력망 구축 및 유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통신산업과 동(銅)을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산업 등을 각각 전·후방 산업으로 두고 있어 정부의 개발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내수시장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송배전 설비 및 통신망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관련 투자가 일탈됨에 따라 성장이 정체되면서 국내 전선업체들의 매출액도 이에 연동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우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대체투자 및 신축국 중심의 전력 인프라 확대 등 각국의 투자정책에 따라 전반적인 시황이 영향을 받고 있다.

### 내수의 경우 성장성 낮은 수준으로 전력선을 중심으로 수요는 일정수준 유지될 전망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국전력의 장기송배전설비계획 등에 따르면,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 송변전설비 및 송전선로의 보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31,600km 수준인 송전선로의 총 회선길이를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약 7,000km 이상 확충될 계획이다. 또한 송전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선이 초고압전력선(154kV 이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도심부하공급 및 쾌적한 도심환경 구축에 유리한 송전선로의 지중화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응한 송배전설비의 신규투자 및 송전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체투자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양호한 전력선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내수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생산능력에 비해 송전선로 신설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수요산업인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세는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수요 증가, 신축국 인프라 투자 등으로 글로벌수요는 양호할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향후 세계 전력생산은 성장세 둔화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2040년까지 연평균 2.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생산 증가는 전력선 수요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전선시장의 성장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송전선로 확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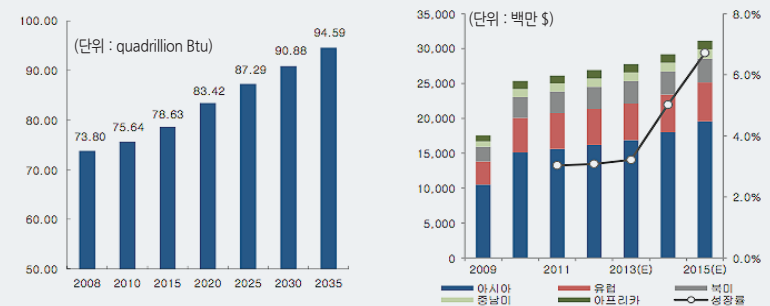
전압	2016년	2020년	2024년	2027년	합계
765kV	190	453	-	-	643
345kV	1,373	773	140	-	2,286
154kV	2,365	810	269	866	4,310
합계	3,928	2,036	409	866	7,239

(단위 : km)  
자료) 한국전력,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자료 재구성.

특히 중국, 중동,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도시화 및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전력 및 통신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신축시장의 수요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70년대 대부분의 전력망이 구축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존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송배전망의 안정성 및 전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체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전기기기의 대용량화 및 건물의 대형화 등으로 대용량 송전이 요구되면서 안정된 전력공급과 송전손실 최소화를 위해 기존 전력선이 초고압선으로 대체되고 있어, 초고압선이 전선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초고압선, 플랜트용 전선, 해저케이블 등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전선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면에서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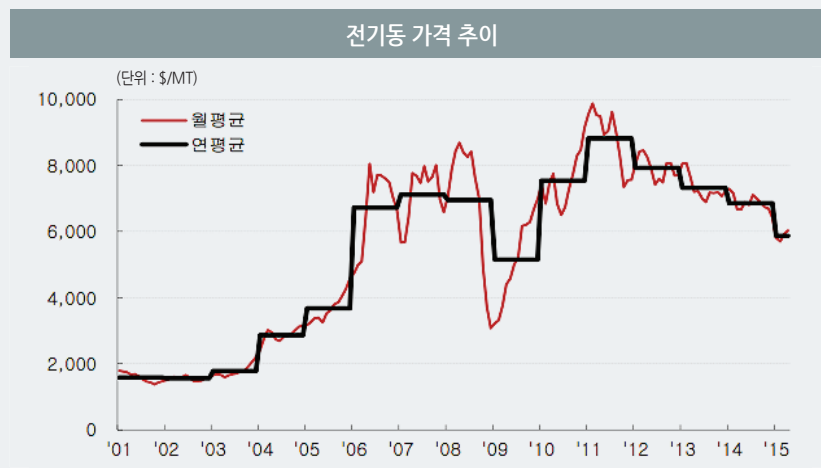
세계 전력생산(좌) 및 세계 전선 시장 규모(우) 전망



자료) EIA, Wire & Cable.

### 2011년 이후 전기동 가격 하향세 지속

제조원가 중 원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전기동 가격 추이는 개별 전선업체의 실적 및 운전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락하였던 전기동 가격은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따른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의 주요 원자재 비축기조,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전기동 가격은 점차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달러화 강세, 투기자금 감소 등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자료) 한국비철금속협회.

특히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요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칠레, 페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구리광산이 신규 생산을 시작하고 중국 내 전기동 공급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수급에 의한 전기동 가격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가격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주요 구리광산의 투자지연 등에 기인한 공급변수, 신규투자 감소 등에 따른 스크랩 부족, 달러화 추이 및 투기적 요인 등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혼재되어 있어 전기동 가격은 일정 수준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㉓

